

미국의 아시아태평양중시정책의 흉악성과 그 파산의 불가피성

김진평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오늘 국제무대에서는 주권국가들에 대한 제국주의자들의 간섭과 군사적침략책동으로 하여 인류의 평화와 안전에 엄중한 위험이 조성되고있으며 특히 조선반도를 포함한 아시아태평양지역은 항시적인 긴장이 떠도는 세계최대의 열점지역으로 되고있습니다.》(《신년사》 2013년 1월 1일 단행본 18페이지)

새 세기에 들어와 미국은 또다시 아시아태평양중시정책을 떠들어대면서 아시아태평양지역에 대한 침략책동을 더욱 로골화하고있다.

미국의 아시아태평양중시정책은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파괴하고 나아가서는 세계의 평화와 안전, 사회발전을 저해하는 가장 흉악한 침략정책이다.

미국의 아시아태평양중시정책이 가장 흉악한 침략정책으로 되는것은 첫째로, 그것이 가장 호전적인 침략사상에 기초하고있는 정책이기때문이다.

미국의 아시아태평양중시정책은 악명 높은 《마니페스트 디스티니》와 《서부개척정신》, 《지정학》에 그 사상적기초를 두고있다.

《마니페스트 디스티니》란 《명백한 운명》이라는 뜻 즉 다른 나라를 침략하고 병탄할 《명백한 운명》을 《하느님》이 주었다고 설교하는 침략사상이다.

《서부개척정신》이란 이른바 《서부개척》과정(미국형성후 서부예로의 령토팽창과정)에 표현된 앵글로색슨족의 《개척정신》으로서 《이민지》와 원주민인 인디언거주지와와의 경계인 《프론티어》를 서쪽으로 끊임없이 《전진》시켜 아시아태

평양지역으로 나가야 한다는 강도적인 팽창론이다.

《지정학》은 자연지리적요인이 국가정치를 규정한다는 부르조아사회학의 한 조류로서 서방의 《고등인종》은 《라태한 농업민족》을 지배하고 노예로 만들어야 한다는 반동적인 인종주의사상이며 침략전쟁을 《제한된 공간》속에 있는 국가의 《자연적행위》, 《국가의 생활공간장성의 합법칙적행사》로 묘사하면서 제국주의의 침략과 팽창정책을 합리화하는 반동적인 리론이다.

이러한 강도적침략사상들에 기초하여 미국은 광란적인 령토팽창전쟁을 벌려 대서양연안으로부터 태평양연안에 이르는 북아메리카의 넓은 령역을 차지하였으며 아시아태평양지역에로의 해외팽창책동을 합리화해나섰다.

미국의 아시아태평양중시정책이 가장 흉악한 침략정책으로 되는것은 둘째로, 그것이 지역분쟁을 조장하고 새로운 군비경쟁을 산생시키는 분렬정책, 새로운 령전정책이기때문이다.

1970년대에 미제는 아시아태평양중시정책실현을 위하여 아시아에서는 아시아인들끼리 싸우게 한다는 《새 아시아정책》이라는것을 들고나왔다. 이 전략에 따라 미제는 《두개조선》조작책동에 악랄하게 매달리면서 남조선괴뢰군의 무장장비를 현대화하고 동족대결에로 적극 부추겼다.

오늘에 이르러서도 미국은 중-일, 로-일사이의 령토분쟁과 중국남해를 둘러싼 이 지역 나라들사이의 령토 및 령해권분쟁에 적극 간섭하면서 정세를 긴장시키고있다.

미국의 책동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지역에서는 분쟁이 격화되고 새로운 군비 경쟁이 벌어지는 사태가 빚어지고있다.

미국의 아시아태평양중시정책이 가장 흉악한 침략정책으로 되는것은 셋째로, 그것이 핵만능론에 기초한 위험한 핵전쟁정책, 세계제패정책이기때문이다.

미국의 아시아태평양중시정책은 국가형성직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여러가지 침략교리들로 간판을 바꾸어가면서 끊임없이 강화되어왔다.

미국이 들고나온 모든 침략교리들은 다같이 아시아태평양지역을 지배하고 나아가서 전세계를 지배하기 위한 침략사상들이며 그 실현의 기동을 이루고있는것은 군사적우세 특히는 핵우세이다.

지난 세기 미국이 들고나왔던 침략전략들인 《접전전략》과 《대량보복전략》만 놓고보아도 《핵독점》과 《힘의 우위》로 우리 나라와 중국, 이전 소련을 임의의 시각에 공격할수 있도록 그 주변에 수많은 군사기지들을 설치하고 핵전쟁능력강화에 계속 박차를 가하며 《고도의 기동성을 가진 즉응전쟁능력》을 편성하는것과 함께 해외미군기지들을 핵공격기지로 전변시키는것을 골자로 하고있다.

최근 미국이 아시아태평양중시정책의 일환으로 내놓은 새로운 국방전략이라는것도 《미군의 아시아태평양지역에로의 전략적이동과 최첨단무장장비에 의한 군사기술적우세보장》을 골자로 하는 침략적군사전략으로서 이 지역에서 핵잠수함, 스텔스전투폭격기, 미싸일방어체계, 우주무기 등 핵무기를 기본으로 하는 군사적힘에 의거하여 아시아태평양지역을 지배하려는 전략이다.

미국의 책동으로 말미암아 오늘 아시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이 엄중한 위협을 받고있으며 특히 조선반도는 일촉즉발의 핵전쟁위협에 직면하고있다.

미국은 《작전계획5027》을 비롯한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수많은 핵전쟁계획을 작성해놓고 그 수행을 가상한 핵전쟁연습을 끊임없이 감행하고있으며 남조선에 1 720여개의 각종 핵무기와 그 운반수단들을 배비해놓음으로써 이 지역을 세계최대의 핵전쟁열점지대로 만들었다.

이러한 조건에서 조선반도는 언제 핵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는 초긴장상태에 놓여있으며 그로하여 지역의 안전과 나아가서 세계의 평화와 안전이 크게 위협당하고있다.

그러나 미제의 아시아태평양지배정책은 파산의 운명을 면할수 없다.

미국의 아시아태평양중시정책이 파산을 면치못하게 되는것은 첫째로, 미국의 아시아태평양중시정책의 사상적기초를 이루는 지배주의, 패권주의가 정치, 도덕적으로 파산당하게 된것과 관련된다.

미국은 령전종식후 세계 《유일초대국》으로 등장하여 미국식자유민주주의체제 밑에 전세계를 《일극화》하기 위한 책동에 더욱 열을 올리였다.

미국의 《일극화》책동에서 주되는 목표는 사회주의를 완전히 말살하는것이다. 특히 미국은 자주의 기치, 선군의 기치를 높이 들고 변함없이 사회주의의 한길을 가는 우리 공화국을 저들의 가장 큰적수로 간주하고 우리를 압살하려고 미쳐날뛰고있다.

그러나 우리 인민은 선군정치의 위력으로 미국을 비롯한 온갖 적대세력의 도발과 도전을 짓부시며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가고있으며 반미투쟁의 최전선에서 승리를 이룩해나가는 우리 인민의 투쟁에 고무되어 세계도처에서 반미자주의 길로 나아가는 나라들의 대렬이 더욱 늘어나고있다.

미국의 세계제패를 위한 패권주의, 지

배주의정책은 세계의 도처에서 강한 반대에 부딪치고있다.

1993년 11월 1일 미국의 《일극화》책동에 대비하여 유럽나라들이 유럽동맹을 창설하였으며 세계의 다극화를 지향하면서 정치, 경제, 안보, 외교분야에서 독자성과 영향력을 한층 강화하기 위하여 노력하고있다.

2001년 3월 아프리카나라들도 미국의 《세계화》책동에 공동의 전략으로 맞서며 대륙의 사회, 정치, 경제적잠재력과 자연부원을 최대한으로 동원리용하여 공동의 번영을 이룩하기 위하여 《아프리카동맹》을 결성하였다.

특히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이 지역나라들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회의》와 《동남아시아국가연합》, 《상해협조기구》를 비롯한 지역기구들을 통하여 다무적 및 쌍무적협력관계를 강화해나가고있다.

이밖에도 《안데스공동시장》, 《아랍마그리브동맹》을 비롯하여 세계의 도처에서 미국의 《세계화》, 《일극화》책동에 대항하여 정치, 경제, 국방분야에서 지역적통일과 단합을 위한 기구들이 조직되어 활동함으로써 다극화가 촉진되게 되었다.

이것은 명백히 미국의 《세계화》, 《일극화》책동의 정치도덕적파산 즉 패권주의, 지배주의의 파산을 의미하는것이다.

미국의 아시아태평양중시정책이 파산을 면치못하게 되는것은 둘째로, 미국의 아시아태평양중시정책실현의 기둥인 군사적우세 특히 핵우세가 더 이상 맥을 출수 없게 된것과 관련된다.

현시기 미국의 아시아태평양전략은 본질상 핵만능론에 기초한것이다. 아시아태평양지역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국방전략에서 미국은 《핵무기고를 효율적으로 유지》할것이라고 하면서 《보다 소

형화된 핵무기들로》목표를 달성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핵무기는 절대로 만능이 아니며 미국의 유일한 소유물도 아니다.

아시아태평양지역 나라들은 미국의 아시아중시정책에 대처하여 자기의 군사력을 강화함으로써 미국의 군사적우세에 도전해나서고있다.

중국에서는 2012년 8월 첫 항공모함 《료녕》호를 진수시킨데 뒤이어 2020년대 중반기까지 5척의 항공모함을 확보하며 현재의 60여척인 잠수함도 90척으로 늘이려 하고있다. 중국은 해군력뿐만아니라 전략로켓 및 공군력강화에도 힘을 넣고있다. 이미 여러차례에 걸치는 인공지구위성발사로 대륙간탄도미싸일의 위력을 높인데 이어 다음세대의 스텔스전투기개발을 다그치고있다.

로씨야도 미국의 아시아태평양중시정책에 대처하여 자기의 국방력강화에 큰 힘을 넣고있다.

로씨야의 국방력강화에서 주되는것은 대륙간탄도미싸일체계의 개발 및 완성이다. 로씨야는 2004년말 4차의 시험발사를 거쳐 미제의 미싸일방위체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수 있는 이동식대륙간탄도미싸일종합체인 《또뿔-M》을 전략로켓군에 배비하였으며 2013년 6월 6일 현재뿐만아니라 앞으로도 미국의 미싸일방위체계가 요격할수 없을것으로 평가되는 신형대륙간탄도미싸일발사를 성과적으로 진행하였다.

또한 로씨야는 2020년까지 120조루블(6044억US\$)에 달하는 국가무장장비계획(10개년강군계획)에 따라 항공우주방어군을 무장시키는데 약 3조 4천억루블을 지출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최신형전파탐지기들인 《위로네쥬-M》과 《위로네쥬-DM》기지공사가 진행되고있으며 《뻬찌리-C》대공미싸일종

합체와 《C-400》종합체가 실전배치됨으로써 항공우주군의 전투력이 비상이 높아졌다.

이와 같이 로씨야는 군사장비의 현대화를 다그치고있으며 그것을 원동지역에 중점적으로 배치하여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과 일본의 무력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고있다.

이처럼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우리 공화국과 중국, 로씨야를 비롯한 지역의 군사강국들의 적극적인 군사적대응으로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군사적우세를 차지함으로써 이 지역지배를 실현하려는 미국의 아시아태평양중시정책은 커다란 장애에 부딪치게 되었다.

미국이 각종 최첨단장비들로 무장하였으며 거대한 군사적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이 지역나라들을 군사적으로 제압할수 없다는것은 명백한 사실이며 이것은 군사적우세 특히 핵우세에 의한 미국의 아시아태평양중시정책의 파산을 의미하는것이다.

이처럼 미국의 아시아태평양중시정책은 그 사상적기초를 이루고있는 지배주의, 패권주의의 파산, 자유롭고 평화로운 세계를 지향하는 이 지역 나라인들의 투쟁으로 파산을 면할수 없다.

우리는 미국의 아시아태평양중시정책의 침략적이며 략탈적인 본질과 흉악성, 파산의 불가피성을 똑바로 인식하고 선군의 기치따라 힘차게 싸워나감으로써 지역의 평화와 안전 나아가서 세계의 자주화위업실현에 적극 이바지해야 할것이다.